

2025. 4. 20

AI 투자의 경제 영향에 대한 해외시각

정형민 | 선임전문위원(3705-6130)

- [이슈] 인공지능(AI)은 범용 기술로서 과거 전기, IT 등과 같이 인류의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. AI 관련 투자 지출,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효과, 산업 전반의 도입 수준 및 관련 애로에 대한 해외시각을 살펴봄
- [성장 효과] '25년 중 AI 관련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가 미국과 중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, 대만 등 하드웨어 수출국으로 수요가 확산. 올해에도 AI 관련 투자는 글로벌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
 - '25년 중 AI 투자로 인한 경제 효과는 관련 투자가 가장 대규모로 활발하게 일어난 미국에서 뚜렷하고, 대만 등 AI 관련 수출국에서 성장을 큰 폭으로 제고. '25년 성장 효과(%p)는 미국 0.5, 중국 0.2, 선진국 0.1, 글로벌 0.2로 추정(CE)
 - '26년에도 미국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더욱 확대 예상(5대 하이퍼스케일러 자본지출 '25년 GDP의 1.3%→'26년 2.1%, BoA)되는 등 AI 관련 투자가 계속해서 글로벌 성장을 견인
- [경제 내 AI 확산] 일부 관련 조사에서 높은 활용도와 함께 빠른 도입 추세를 보이나, 특정 부문 외 경제 전반의 본격적 확산 내지 심화된 형태의 활용은 아직 낮은 수준
 - 빠른 확산에도 불구하고, AI 활용이 특정 부문에 집중되거나 AI의 도입 과정에서 다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 및 산업 전반적인 활용도는 아직 낮은 편
 - 주요국 중 미국이 높은 연산 능력, 혁신 기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AI 활용에서 앞서고, 중국이 이를 추격. 유럽은 전반적 도입 수준과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
- [생산성 영향] AI로 인한 장기적 생산성 영향에 대해 단정하기는 시기상조이나, 낙관론과 신중론이 병존하는 가운데 대체로 추세적 상승 전망 시각이 우세
 - AI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와 난이도의 한계 등으로 경제 영향에 대한 보수적 추정(美 연간 생산성 +0.1%p)이 제기되는 한편, AI의 적용 범위를 보다 넓게 가정하거나 과거 유사한 범용 기술 사례를 바탕으로 영향을 더 크게 추정(+0.5~1.5%p)하는 연구 결과도 다수
- [시사점] 당분간 AI 관련 투자가 지속되며 성장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지만, 장기적으로 경제적 수혜의 정도와 시기를 확신하기에는 시기상조. 향후 AI의 경제 내 확산 과정과 영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정책 대응 등에 유의

□ [이슈] 인공지능(AI)은 범용 기술로서 과거 전기, IT 등과 같이 인류의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. AI 관련 투자 지출,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효과, 산업 전반의 도입 수준 및 관련 애로에 대한 해외시각을 살펴봄

□ [성장 효과] '25년 중 AI 관련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가 미국과 중국의 하이퍼스케일러*들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, 대만 등 하드웨어 수출국으로 수요가 확산. 올해에도 AI 관련 투자는 글로벌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

*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방대한 클라우드 컴퓨팅,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

○ AI 관련 기초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(R&D) 투자는 대규모언어모델(LLM), 알고리즘 등 AI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에서 크게 증가

- 미국은 '25년 중 MS, 아마존, 구글 3개사의 R&D 투자만 \$1,800억에 달하는 등 민간 빅테크를 중심으로 매년 대규모 투자(\$2,500억 이상, GDP의 0.8%)가 상당 기간 지속 예상(UBS 등)

- 중국의 경우 '25년 상위 6개 기업의 투자는 2,580억위안 수준(GDP 대비 0.2%)이었으나, R&D 투자가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성격 상 작년 과학기술 예산 3,981억위안 중 상당 부분이 AI 관련 투자로 지출 추정(GDP 대비 +0.3%, CE)

○ AI 기술이 실제로 구현되도록 GPU, 메모리 등 반도체 획득, 데이터 센터 건설,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, 전력 설비, 소프트웨어 지출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미국과 중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

- 미국의 상위 5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지출은 '25년 중 \$4,000억(GDP 대비 1.3%)를 상회하고 '28년에는 \$8,000억까지 확대 전망(JPM)

• '25년 중 GDP 설비투자 항목(실질기준) 중 컴퓨터 하드웨어 투자는 40% 이상 증가하고 4분기에는 70% 이상 급증. 소프트웨어 투자도 10% 이상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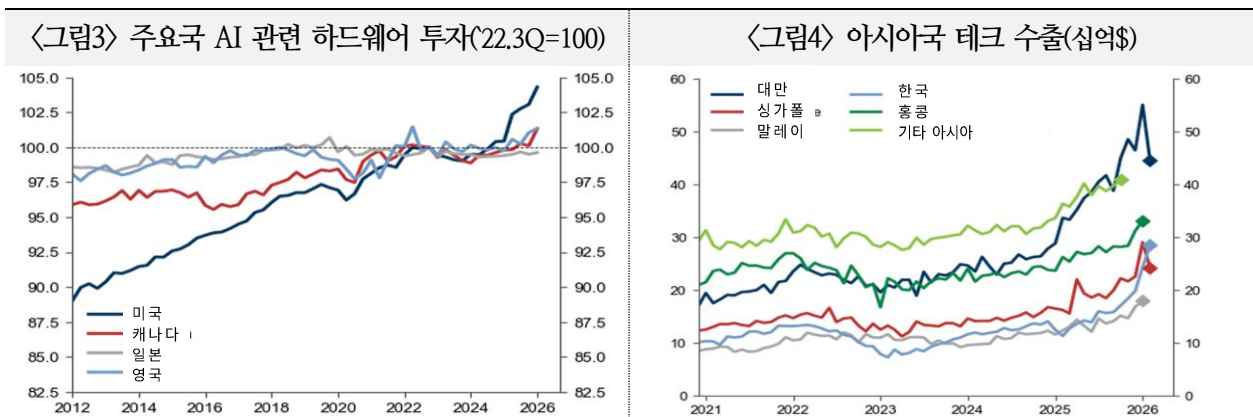
- 중국 역시 투자가 크게 증가('25년 6~7천억 위안)했으나, 중국 최대 하이퍼스케일러인 알리바바의 투자 규모가 미국 아마존의 12%에 그치는 등 민간 투자는 상대적으로 작음(CE)

• 이는 중국의 데이터 센터는 국가가 주로 건설하고 기업들은 임대하는 방식에도 기인.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투자를 제약

- 한편, 미국 등의 AI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의 상당 부분이 수입재에 의존하며 다수의 국가들이 인프라 투자 단계에 참여

• 서버와 GPU는 주로 멕시코, 대만, 베트남, 태국에서 조립/수입되며, 메모리 칩은 한국이 주 공급처. 전자회로의 경우 주로 이스라엘, 대만, 말레이시아, 일본, 냉각 장비는 캐나다, 멕시코, 태국 등에서 수입하는 등 광범위하고 지역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(BoA)

- '26년 중 AI 투자의 성장 기여도 확대 예상('25년 0.3 → '26년 0.4, %p). 이는 핵심 투입재의 시차, 건설 기간에 따른 투자 지연, 투입재의 높은 수입 의존도, 공급물가 상승 등을 감안한 것으로 빅테크들의 투자 계획 액면 반영 시 성장 효과는 이보다 커질 소지
- 중국 역시 AI 자본지출이 정부 이니셔티브와 테크 기업 투자에 뒷받침되며 '25년 달러가치로 약 \$900억(GDP의 0.5%) → '30년 약 \$3,300억(GDP의 1.2%)로 확대 예상
- AI 자본지출이 '26~28년 중국 성장률에 매년 0.2~0.3%p 기여할 것(Morgan Stanley)
- 다만, 멕시코, 한국 등 자본재 공급국가에 AI 투자 가속화에 따른 상당한 파급 효과 지속 예상.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이 이들 경제에 가스 부족 등 주요한 하방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동 전망은 유효
-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AI 수요에 힘입어 '26.1~3월 중 전년비 약 140% 증가
- 유럽은 상대적으로 뒤쳐진 AI 투자를 만회하기 위한 민-관 이니셔티브(InvestAI €2천억), 佛 데이터 센터 계획(€1,090억) 등 투자가 성장에 기여하나 美, 中과는 큰 격차
- '26년 이후에도 AI 관련 대규모 지출이 이어질 전망이나, 지난 수년간 가파른 자본지출 증가 등 고려 시 높은 성장 기여도를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을 소지(Allianz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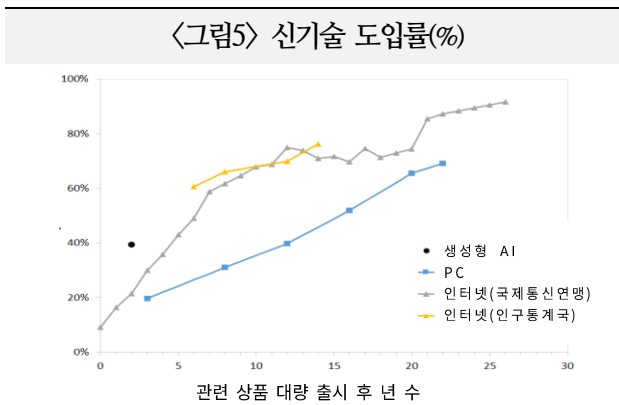
자료: Goldman Sachs

자료: Goldman Sach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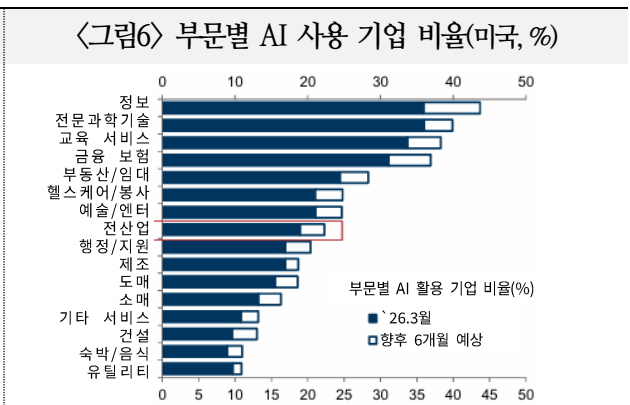
□ [경제 내 AI 확산] 일부 관련 조사에서 높은 활용도와 함께 빠른 도입 추세를 보이나, 특정 부문 외 경제 전반의 본격적 확산 내지 심화된 형태의 활용은 아직 낮은 수준

- 최근 기업 활동이나 개인 업무에서 AI의 활용도에 대한 조사 결과, AI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과거 주요 기술에 비해서도 도입 속도가 빠른 수준
- McKinsey 조사 결과('25년) 105개국 기관에서 사업 기능 중 적어도 한 분야 이상에서 AI를 활용하는 비율이 '23년 55% → '25년 88%로 증가. Reuters 조사('26년)는 전세계 3,200개 기업들에서 생성형 AI 사용 비율이 '24년 22% → '25년 40%로 증가

- ChatGPT 출시 2년 후인 '24년 미국 기준 인구의 40%가 AI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, 첫 대중용 PC가 출시된 지 3년 후 20%의 도입률과 인터넷 사용의 주류 전환된 지 3년 후 30%의 인터넷 도입률을 상회(St. Louis Fed)
 - 업무 및 개인 용도에서 모두 이전 기술들에 비해 빠른 도입 속도(Penn World Budget Model)
- 가파른 확산 불구, AI 활용이 특정 부문에 집중되거나 AI의 도입 과정에서 다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 및 산업 전반적인 활용도는 아직 낮은 편
 - 미국 인구통계국의 보다 광범위한 전국적 조사 결과, AI 도입률(향후 6개월 내 AI 사용 예정 기업 비율)이 상승하고 있으나 '26.3월 현재 22.5%로 비교적 낮은 수준
 - AI 사용 계획은 전반적으로 상승세이나, 정보, 기술, 전문 서비스 기업의 경우 40% 내외에 달하는 반면, 도소매, 건설 등에서는 10%에 불과하며 부문간 격차
 - 상기한 서베이 결과 등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도입 의사에도 불구하고 AI를 사업 체계에 통합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
 - 조사대상 기업의 2/3는 AI 활용이 실험 내지 파일럿 단계에 머물렀으며, 조직전반적으로 AI를 완전히 구현한 경우는 7%에 불과(McKinsey), 대중적인 생성형 AI가 가장 공통된 도구이며 15%만이 에이전트 AI 사용(Reuters)
 - 조사대상 기업의 5%만이 AI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성과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으며, 74%는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(BCG)
 - 기업들의 AI 도입 과정에서 데이터의 품질 및 통합 문제, 인프라 및 기술 인력의 부족, 변화에 저항하는 조직적 관성, 비전의 부재, 미래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애로로 작용(Harvard Business Review 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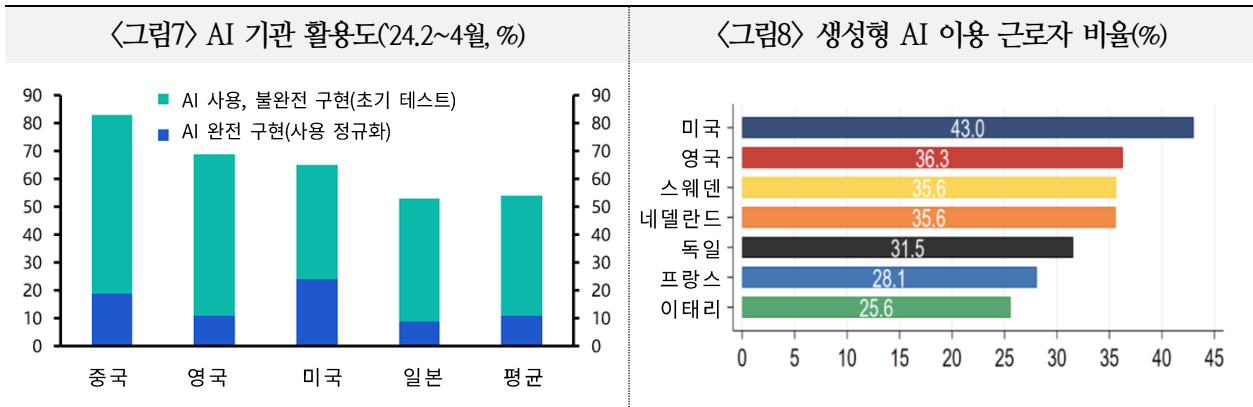
자료: FRB St Louis



자료: Goldman Sachs(미국 인구통계국)

- 주요국 간 미국이 높은 연산 능력, 혁신 기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AI 활용에서 앞서고, 중국이 이를 추격, 유럽은 전반적 도입 수준과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

- 미국은 전반적인 AI 활용도는 높지 않으나, 혁신 기업 및 이들이 개발한 주요 AI 모델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, AI 연산 능력(글로벌 75%) 등 지배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AI를 설계하고,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시키는 데 선도적
 - 주요 AI 모델 수: 미국 40개, 중국 15개, 유럽 3개(Stanford Human-Centered AI)
 - 글로벌 AI 성숙 기업 상위 50개 중 미국 기업 27개(IMD). 중국은 AI를 도입한 기업 비율이 미국보다 높았지만, AI를 완전히 구현한 기업의 비율은 미국이 더 높음(CE)
- 중국은 정부 주도 이니셔티브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높은 AI 활용도, 높은 데이터 접근성 및 AI 관련 특허를 최다 보유하고 로봇, 자동화 등 AI 응용 분야에 강점
 - AI 도입률 43%(25년말 전국, 中 정부)~83%(24년 기업, SAS Inst.)
- 유럽은 도입률은 전반적으로 미국을 하회하나, 노르웨이, 네델란드 등 북유럽에서는 높은 수준인 등 역내 격차. 상대적으로 취약한 AI 인프라 등으로 글로벌 AI 선도 기업이 부족하며 AI의 신뢰성을 중시한 규제 등으로 변화 속도 완만
 - '25년 중반 최소 두 가지 사업 기능에서 AI를 사용하는 미국 기업 비율은 81% ↔ EU 기업 비율 55%(EIB). AI 도입률(%): 노르웨이 46, 아일랜드 45 ↔ 폴란드 29, 이태리 28(MS)



자료: SAS Institute, Capital Economics

자료: CEPR

- [생산성 영향] AI로 인한 장기적 생산성 영향에 대해 단정하기는 시기상조이나, 낙관론과 신중론이 병존하는 가운데 대체로 추세적 상승 전망 시각이 우세
 - AI 도입은 자동화, 노동과의 결합(synergy), 자본 심화, 새로운 직업 및 산업의 출현의 경로를 통해 생산성에 영향

〈표1〉 AI의 생산성 향상 경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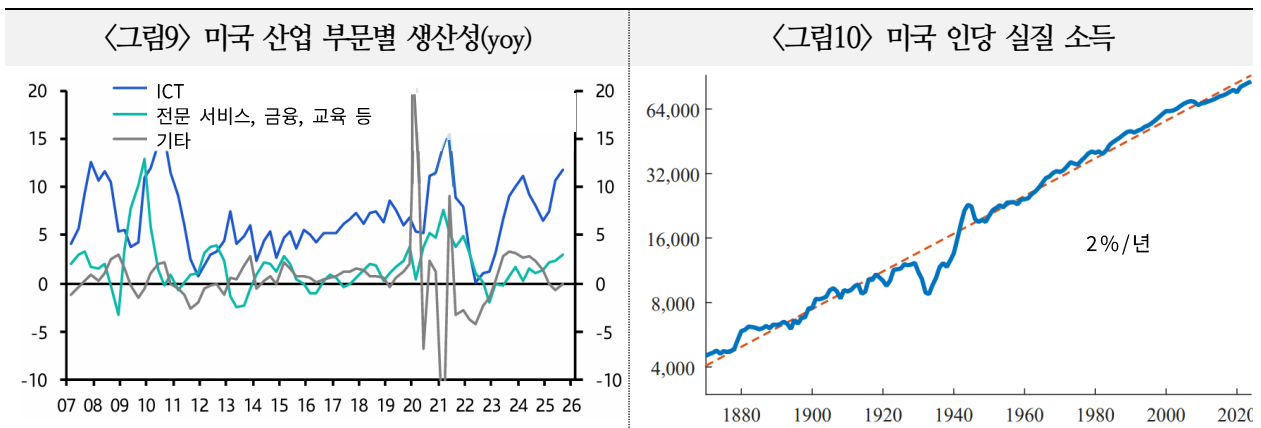
경로	효과
자동화	자율주행, 로봇틱스 등 AI 를 통해 특정 작업을 인간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인간 노동을 대체
노동과의 시너지	AI 는 인간에게 업무 수행을 위한 추가적인 도구를 제공하고 작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노동의 보완재로 작용
자본 심화	이미 자본 투입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작업을 AI 를 활용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. AI 는 기존 자본 스톡에 대체재 또는 보완재 역할
새로운 일자리 및 산업의 등장	IT 혁명 이후 등장한 웹 디자인, 컴퓨터 코딩, 클라우드 관리, 사이버보안 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과 일자리는 기존 산업과 직업에 비해 높은 생산성을 가질 가능성

자료: Citi

- 최근 수년간 미국 경제에서 생산성(23년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 2% 상회)이 빠르게 증가하고 IT, 전문 서비스 등 AI와 관련이 높은 부문이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, 아직 AI로 인한 경제 전반의 본격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보기는 시기상조(Goldman Sachs 등)
 - 최근 생산성 증가는 AI에 의한 기여도 있으나, 이 외 팬데믹 기간 타이트했던 노동시장의 시차 효과, 경영 효율화, AI 외 다른 기술 혁신 등의 기여도 다분
 - AI 관련 투자가 노동장비율 상승을 통해 생산성을 개선시켰을 것이나, 본격적인 자동화, 새로운 직업의 출현 등 구조적 변화 여부는 불확실
-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이르나, 생산성과 성장에 큰 변화를 전망하는 의견과 과거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공존. 애스모글루(Daron Acemoglu)는 선구적인 과업 기반(task-based) 모델¹을 통해 AI의 경제 영향을 보수적으로 추정
 - 과업 기반 접근 방식은 (1) AI에 영향을 받는 작업(task)의 비중(GDP 가중치), (2) AI로 인해 동 작업에서 발생하는 평균 노동비용 절감의 두 경로를 통해 경제 영향
 - 애스모글루는 다양한 연구를 활용하여, (1) AI의 영향을 받는 작업이 GDP의 약 20%이고, 그중 약 23%는 향후 10년 내 AI 기술을 통해 수익성 있게 수행 가능(작업 비중 GDP의 4.6%)하며, (2) 노동비용 절감 효과는 약 27%로 추정
 - 이러한 가정을 통해 향후 10년간 미국경제에 대한 효과는 총요소 생산성(TFP) 0.71%, GDP 1.1%, 보다 엄격한 가정 시 TFP 0.55%, GDP 0.9%로 성장률에 대한 효과가 연간 0.1%p 정도의 매우 완만한 수준으로 추산

¹ Acemoglu, "The Simple Macroeconomics of AI," NBER 2024

- 이러한 수치는 AI의 잠재적인 학습 능력을 고려할 때 상당히 보수적인 전망이나, 과거 수많은 변혁적인 기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장기간 평균 2% 내외의 일정한 수준을 지속해 왔음을 감안할 때 타당한 하나의 시나리오²
 - 과거 150년에 걸친 기간 동안 전기의 보급, 내연기관, 항생제, 반도체, PC, 인터넷 등 기업 생산과 개인 생활을 심오하게 변화시키는 범용 기술의 개발 및 도입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장기 성장률이 일정하다는 것은,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경제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기보다는 범용 기술들이 없었을 경우 발생할 성장의 둔화를 방지했다는 것



자료: Capital Economics

자료: Jones, NBER 2006 주: '24년 달러 기준, log scale

- 한편, 애스모글루의 분석 틀을 활용하면서도 AI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가정을 완화하거나, 과거 유사한 범용 기술 사례를 바탕으로 AI의 영향력을 훨씬 더 크게 추산하는 연구 결과들도 다수
 - Penn World Budget Model(2025)은 애스모글루의 엄격한 가정을 완화해 AI 노출 작업 비중을 약 2배로 가정하고 '35년까지 미국의 TFP 1.5% 증가 추산
 - Aghion & Bunel(2024)은 AI 노출률·도입률·비용 절감률에 대해 기존 실증 문헌을 재해석해 TFP 증가율 추정치를 애스모글루의 10배인 연간 0.68%p로 도출
 - AI 노출 작업의 비중을 18.5~68%까지 확대하고, AI 기술 발전에 따라 비용이 하락하며 수익성 있게 자동화 가능한 작업의 비율이 23~80%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가정
 - OECD(2025)는 AI의 도입 속도가 과거 전기와 비슷할 경우 AI가 향후 10년간 미국의 노동생산성을 매년 0.4%p 향상시키고, 도입 속도가 컴퓨터/인터넷과 비슷할 경우 매년 1%p, 휴대전화와 비슷할 경우 1.3%p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
 - G7 국가간 AI 관련 산업 비중 등에 따라 연간 노동생산성 향상(%p) 폭은 영국 0.4~1.3, 프랑스 0.3~1.1, 이태리 0.2~0.9, 일본 0.2~0.8 등 격차

² Jones, "A.I. and Our Economic Future," NBER 2026

- 최근 연구들은 대체로 AI를 통해 잠재적으로 20~40%의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으며, 비용 절감 효과는 30~40%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에 수렴(Citi)
 - 이 경우 미국의 총요소생산성은 6~16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것이 10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면 연평균 약 0.5~1.5%의 생산성 향상을 의미
 - AI의 생산성 향상 효과에 대한 학술 연구들은 평균적으로 노동생산성이 23% 증가할 것으로 예측. 개별 기업 사례들은 평균적으로 약 33%의 생산성 향상을 보고(GS)

□ [투자 저해 요인] AI 관련 투자는 긍정적인 수요 전망, 과잉 투자의 징후 부재 등으로 당분간 지속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. 다만, 에너지 부족, 자금조달 애로 점증 등 잠재적 제약 요인 등도 상존함에 유의

- AI 투자 수요 관련, 산업 초기 단계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필요, 보다 많은 연산 요구 등 당분간 긍정적 요인 우세 평가. 현재까지 공급 과잉 징후도 부재
 - AI 활용도가 아직 낮으며 관련 투자가 초기 단계로 향후 지속 내지 확대 예상
 - 현재 AI 투자는 과거 유사한 범용기술들의 투자 사이클 정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최근 급격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추가 상승할 여지
 - '28년까지 약 3조 달러 규모의 AI 관련 인프라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, 그중 80% 이상의 지출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(Morgan Stanley)
 - 구글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는 “AI 경쟁에서 지느니 차라리 파산하겠다”고 언급하는 등 AI 모델의 승자독식 성격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경쟁을 위해 자본지출을 더욱 늘릴 필요
 - AI 활용은 이미지 및 비디오 생성과 같이 더 많은 연산과 에너지 소비가 필요한 작업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지속적 투자가 요구. 설비의 과잉 징후도 나타나지 않음
 - 대규모 텍스트 모델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시간당 약 0.931와트인 반면, AI로 생성된 비디오는 시간당 944와트 이상이 필요(MIT)
 - 북미 지역 데이터 센터의 공실률이 '25년말 1.4%의 역사적 저점.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의 92%의 임대료가 확정된 상황이며, 데이터 센터 사용요금도 상승 중(CBRE 등)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전력 부족, 자금 조달 압력 증가, 최근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공급부족 소지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, AI 투자가 이어지더라도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제 영향을 제한할 소지(Bank of America)
 - AI 투자가 집중된 미국에서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가 투자의 병목으로 작용할 가능성
 -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'25년 62GW → '30년 134GW까지 증가(S&P Global)하고 전체 전력 수요 대비 비중도 상승 전망('23년 4.4% → '28년 12%, LBNL)

- 이에 반해 전력은 부족. 복잡한 인허가 및 규제, 전력망의 노후화 및 용량 부족 등으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 연결 기간이 증가('00~'07년 평균 2년 → '23~'24년 5년)하는 등 전력 공급 문제가 점증하고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연 등으로 연결
- 미국은 최근 데이터센터 건설 지역에서 에너지 수요 증가가 크게 나타나며 가계 등의 에너지 비용도 상승.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이 전기차, 제조업 리쇼어링 등 추가적인 전력 수요 증가와 맞물리면서 전력망에 부담을 주고 데이터센터 가동 능력을 제한할 우려
- 대규모 투자 및 자본지출 계획 상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도 제기되며, 테크 기업들이 자본 비용 증가, 현금 감소 등으로 자금조달 애로 소지
 -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 확대에 회사채 발행('25년 +\$1200억, BNY Mellon), 사모신용 등 부채에 점차 의존하는 모습이며, 작년말 이후 신용 스프레드가 다른 투자등급 대비 상승. 최근 글로벌 펀드매니저 서베이에서 이들의 투자가 과도하다는 응답이 35%로 상당수(BoA)
 -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상당한 영업현금흐름을 보유하고 있으나, 올해 이들의 영업현금흐름 대비 자본지출 비율이 최대 90%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현금 완충 여력 감소
- 지정학과 관련된 공급망 제약 문제도 잠재적 불안요인
 - 미-중 등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희토류, 반도체 등 핵심 요소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, 관세 인상, 현지화 압력 증가로 이어져 비용을 상승시키고 기술 확산을 저해
 - 최근 중동 전쟁에서와 같이 AI 최대 투자국인 미국이 중동산 원유에 직접 의존하지 않더라도, 지정학적 사태 악화 시 아시아 지역 LNG 공급 차질 등으로 서버, GPU, 메모리와 같은 핵심 AI 투입재 생산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
- 법률 및 규제 환경 관련 기존 물리적 경제를 규율하는 방식에서 AI를 지원하는 데 적합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(Citi)
 - 재산권, 개인정보 보호, 계약, 보안 및 세금 등의 핵심 분야에서 제도적 발전이 필요. 정부가 이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AI 도입이 저해되거나 신기술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소지. 또한 규제 당국이 과잉 반응하여 의도치 않게 AI 기술 개발을 저해할 가능성
- 기존 인력 및 조직의 수용 여부도 핵심 요소로 기업들의 많은 교육 및 지출이 필요
 - 기업은 AI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운영 방식을 재편하고 이 과정에 근로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나, 직업 상실 우려, AI의 잠재력에 대한 이해 부족, 기존 업무로부터의 변화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
 - 기업은 AI 관련 지출 중 최대 2/3를 AI 도구 및 이의 활용을 위한 교육, 훈련 등 인적자원 측면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추정(BCG)

- [시사점] 당분간 AI 관련 투자가 지속되며 성장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지만, 장기적으로 경제적 수혜의 정도와 시기를 확신하기에는 시기상조. 향후 AI의 경제 내 확산 과정과 영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정책 대응 등에 유의
 - AI는 향후 산업의 지형을 바꿀 잠재력으로 기업 외 국가간 및 지정학적 경쟁의 측면. AI 기술 개발에 따른 수혜를 위해 경제 전반에 걸친 원활한 도입이 긴요한 한편, 다수의 기술/제도적 애로도 존재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
 - 단기적으로 대만 등 AI 관련 공급국가가 큰 수혜자이나, 장기적으로 AI의 경제 내 통합과 활용에 앞서는 국가가 유리. 미국은 혁신 능력이 앞서나 전력 공급 등 애로 요인. 중국의 정부주도 방식은 신속한 도입 불구 자원배분 왜곡 등 장단점 병존(CE)
 - AI 기술 도입 과정에서 고용 구조의 재편, 구조적 실업 및 소득 분배의 변화 등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재정정책은 이미 높은 부채 수준 하에서 지출 수요 증가 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
 -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AI가 장기적으로 공급 증대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인인 한편, 잠재성장률을 높여 중립금리를 높일 수 있어 관련 경제 변화를 주시
 - 당분간 AI 투자가 지속될 전망이다, 특히 승차독식 구조의 AI 투자 사이클을 고려할 때 버블 형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용 스프레드, 데이터 센터 공실률, 투자 자본 수익률 등 관련 지표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(BoA)
 - 과거 '70년대 석유, '90년대 기술/통신, '10년대 셰일 산업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공격적으로 설비를 확충하는 호황기를 거쳐 공급과잉 상태가 되는 불황기가 도래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,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문의: 02-3705-6130 혹은 hmjung@kcif.or.kr, 홈페이지: www.kcif.or.kr